



‘성추행 논란 후 1년만에 복귀’ 오달수 “고향서 지난 인생 돌아봐”

“시시비비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 질타”
“모든 것 제 부덕의 소치서 비롯됐다 생각”

배우 오달수가 성추행 논란 후 약 1년만에 독립영화로 복귀하는 가운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오달수는 13일 소속사 씨세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 많이 떨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몇 자 올립니다”라며 “저는 곧 촬영이 진행될 독립영화 ‘요시찰’에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작품이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지난해 초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지냈고, 그러는 동안 경찰의 내사는 종료되었습니다”라며 “지난 일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제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제가 비록 결점 많고 허술한 인간이지만 하지만 연기를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라며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덧붙였다.

오달수의 배우 활동 복귀는 지난 2018년 2월 개봉한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이후 약 1년 만이다.

앞서 오달수는 지난해 두 명의 여성에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뒤 논란에 휩싸였고, 연기 활동을 멈추고 자숙에 들어간 바 있다.

□ 오달수 배우의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오달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 많이 떨립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몇 자 올립니다.

저는 곧 촬영이 진행될 독립영화 ‘요시찰’에 출연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작품이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저는 지난해 초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지냈고, 그러는 동안 경찰의 내사는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일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도 제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결점 많고 허술한 인간이지만 하지만 연기를 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거듭 죄송합니다.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1



강호동 “유재석과 사이 어때?” 질문에 “너무 좋다, 서로 의지해”

강호동이 유재석과의 변함없는 ‘절친’ 사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방송인 박명수와 정준하의 눈 맞춤이 그려졌다.

최고의 인기 예능에 함께 출연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해당 프로그램 종영 이후 사이가 소원해진 듯하다는 ‘볼화살’에 휩싸인 바 있다.

정준하를 보고 크게 놀란 박명수는 “어이가 없네”라고 말했다. 정준하 역시 “나도 상대를 몰랐다”며 어쩔 줄을 몰랐다.

두 사람의 만남은 제3자인 방송 관계자가 신중한 것이었다. 놀람을 뒤로 하고 두 사람은 거짓 없는 눈으로 눈맞춤을 나눴다.

박명수는 “왜 연락을 자주 안 하느냐”고 타박을 하다가도 “너, 사실 보고 싶긴 했다”고 진심을 전했다. 정준하는 “사실 우리 함께 프로그램 할 때 생각해 보면 그저 너무 재미있었다”며

박명수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들은 “만나서 너무 좋다”면서도 녹화 뒤 먹먹을 메뉴를 놓고 끊임없이 대립해 웃음을 자아냈다.

MC들은 “마음과는 반대되는 말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평했고, 이런 가운데 흥분하는 강호동에게 “유재석과의 사이가 어때냐”고 모두가 궁금한 ‘돌직구’ 질문을 던졌다. 이상민도 “연락하지 1년 지났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강호동은 “얼굴 본 지 일주일도 안 됐다. 사이가 너무 좋다. 서로 의지하고 있다”고 답하며 유재석과 여전히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두 사람이 오직 ‘눈맞춤’만으로 낯설지만 진심 가득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침묵 예능’ 채널A ‘아이콘택트’는 매주 월요일 밤 9시30분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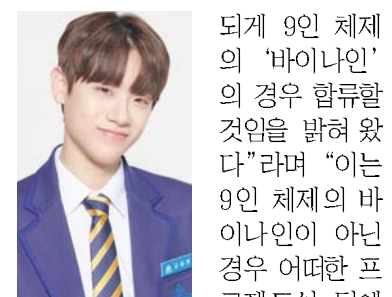
‘프로듀X’ 금동현측 “바이나인? 9인 체제일 때만 합류”

엠넷 ‘프로듀스X101’에 출연했던 금동현 연습생이 향후 활동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3일 C9엔터테인먼트(이하 C9)는 공식 SNS를 통해 연습생 금동현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C9는 “당사는 ‘프로듀스X101’의 종영과 동시에 팬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팀 바이나인(BY9)의 진행에 대해 관심 깊게 관련 동향을 살펴 왔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간 여러 주체들이 금동현 군의 바이나인 합류에 대하여 문의를 해왔다. 이에 대해 당사는 금동현 군과의 대화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고 최초부터 현재까지 일관



되게 9인 체제의 바이나인의 경우 합류할 것임을 밝혀 왔다”라며 “이는 9인 체제의 바이나인이 아닌 경우 어떠한 프로젝트성 팀에

도 합류할 의사가 없음을 말한다. 이러한 당사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 없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C9는 “프로그램 종영 이후 금동현 군은 당사의 연습생들과 함께 댄스, 랩, 어학, 연기 레슨 등을 받으며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전했다.

뉴스1

영화 ‘양자물리학’ 이성태 감독 “버닝썬 ‘과 유사 설정? 신기+당혹”

‘양자물리학’ 감독이 영화의 설정이 버닝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에 “신기하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성태 감독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열린 영화 ‘양자물리학’ (이성태 감독)의 제작보고회에서 ‘버닝썬’과 유사한 설정이 보인다는 말에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실제 영화상에서도 그 부분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며 “이 시나리오 초본 썼을 때가 2016년이다. 그래서 사실 그 사건도 편집하면서 뉴스로 접했다”고 말했다.

‘양자물리학’은 유흥계의 화타, 업계의 에이스, 그리고 구속된 형사가 직접 마약 수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범죄오락영화다. 유흥업계와 마약이라는 소재가 ‘버닝썬’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

이 감독은 “신기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기도 했다”며 “우리 영화는 언급되는 그 부분을 다루는 영화는 아니고 찬우라는 캐릭터가 긍정적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이야기다”라고 영화를 소개했다.

배우 박해수가 이번 영화에서 유흥계의 화타 이찬우 역을 맡았다. 이찬



우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는 양자물리학적 신념으로 죽어가는 업소를 살려내 ‘유흥계 화타’라고 불리는 캐릭터다. 서예자가 사법고시 1차까지 합격한 수재지만 아버지의 사체 빛을 갖기 위해 법조인의 길을 포기한 업계 최고의 매니저 성은영 역을 맡았다. 또 김상효가 정권 교체와 동시에 눈 밖에 난 청렴 경찰 박기현 역을 맡았다.

한편 ‘양자물리학’은 9월 19일 개봉한다.

뉴스1

“싱크로율100%” 갓세븐 잭슨 밀랍 인형

세계적 밀랍인형 박물관 마담투소에 전시

갓세븐 잭슨의 밀랍인형이 전시됐다.

마담투소(Madame Tussauds)는 런던, 뉴욕, 베를린 등에 위치한 세계적인 밀랍인형 박물관으로, 역사적인 왕실 인물들을 비롯해 유명 영화배우, 가수, 스포츠 스타 등의 밀랍인형을 전시한다.

이번 밀랍인형은 영국의 전문가들이 직접 홍콩을 방문, 9시간에 걸쳐 세계 최대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제작됐다.

또한 수많은 취재진을 수용하기 위해 오픈 행사 역시 마담투소 전시관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됐다.

홍콩 출신인 잭슨은 어린 시절부터 마담투소에 자신의 밀랍인형이 전시되는 날을 꿈꿔왔으며 “인생의 5가지 목표 중 하나를 이뤘다”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행사 종료 후 개인 SNS를 통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저를 믿고 응원해 주고,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같이 걸어와 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잭슨의 밀랍인형은 ‘HongKong



Glamour’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재 리노베이션을 진행 중인 ‘Music Icons’ 전시관의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곳으로 옮겨올 예정이다.

한편, 잭슨은 아르마니 향수의 중화권 모델로 낙점되는가 하면 글로벌 패션 브랜드 펜디의 이미지 아이코너로도 맹활약 중이다.

또한 잭슨이 속한 그룹 GOT7은 ‘GOT7 2019 WORLD TOUR KEEP SPINNING’ (갓세븐 2019 월드 투어 킵 스피닝)을 통해 글로벌 팬들과 만나고 있다. 지금까지 북반구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오는 22일 시드니 공연을 시작으로 멜버른, 홍콩, 암스테르담, 런던, 베를린, 마드리드, 파리, 마닐라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